

시론



김 선 기 전남도립대 교양학부·문학평론가

요즘 들어서 '쪽팔리다'란 말을 심심찮게 듣는다. 옛그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미한 한 거물급 정치인의 입에서도 '쪽팔리다'가 스럽없이 나왔다. 그는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초청받은 사람이 줄 서는 게 쪽팔려서 대형스크린으로 취임식을 봤다'라고 했다. 일부 언론도 이를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이제 '쪽팔리다'라는 말이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다. 사실, 이 말이 우리 사회 깊숙이 인식된 건 지난 2022년 9월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48초간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후 "이 x x들이 승인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한 게 그 시발이다. 이른바 '날리면 사건'이다. 그 후 '쪽팔리다'란 말은 어른·아이 가릴 게 없이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다. '쪽팔리다'라는 말은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의 속어다.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말 한마디가 유행처럼 확산더니, 급기야는 국

'쪽팔리다'란 말이 무감각한 나라

어사전에까지 수록되었다. 그렇다면 '쪽팔리다'라는 말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 어원은 무엇일까? 그에 대한 설은 분분하다. 하나는, 일본 사람을 속되게 부를 때 '쪽바리'라고 하는 데에서 비롯됐단 주장이다. 즉 '쪽바리'가 '쪽바리다'로, 다시 '쪽팔리다'로의 변형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어학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또 하나는 '쪽팔리다'라는 말은 '쪽'과 '팔리다'의 합성어란 견해다. 여기에는 대다수 학자가 의견을 같이한다. '팔리다'라는 낱말은 '팔다'의 피동형이다. '쪽'이라는 낱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사람의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쪽팔리다'라는 말은 '얼굴이 팔리다'를 어원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은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람의 뒤통수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자어에서 얼굴을 나타내는 글자에는 면(面), 안(顔), 용(容) 등이 있다. '면'은 얼굴이라는 뜻과 함께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이런 까닭에 '쪽팔리다'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체면이 깎이다'라는 협의적 개념이 아닌, 자신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까지를 나타내는 광의적 개념을 지닌다. 과거에 '쪽'이라는 말은 얼굴을 세는 단위

로 쓰였다. 책 페이지를 세는 말에서 일면(一面), 이면(二面)이라고 썼는데, 요즘은 한쪽, 두 쪽으로 세고 있는 데에서 '면'과 '쪽'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때의 '쪽'이라는 말은 얼굴과 상통한다.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단한 거물들이 다 모인 것이다'라는 말에서 '면'은 사람의 얼굴을 세는 단위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세는 단위를, 물건을 세는 '쪽'으로 바꾸고 비유하여 '쪽팔리다'라는 형태의 속어가 됐다는 게다. 원래 '창피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좋지 않은 일로 여러 사람에게 얼굴이 알려지게 되어 기분이 몹시 상하다'라는 말이다. '쪽팔리다'라는 말 역시 '창피하다'와 같은 뜻으로써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초에 무슨 국어 공부냐?'라는 지적이 있을 법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낀 이가 많을 줄 안다. 그래서 꺼낸 주제다. 게다가 일부 정치인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우리를 더욱 쪽팔리게 하고 있잖는가. 이번 사태를 두고 한남동 성전(聖戰)이니, 아스팔트 십자군(十字軍)이니, 심지어 장자연 선생의 '시일이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까지 끌어들이어 아귀도 맞지 않는 궤변을 배설하고 있다. 정말, 애들 보기에도 쪽팔리는 현실이다.

社說

본격화된 대구 신공항과 대비되는 광주 군공항 이전

국방부가 최근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후보지로 유력한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이 최우선인어서 논의 자체가 쉽지 않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유례없는 법원 폭동까지 국가·사회적 혼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 범정부협의체 실무회의를 무기 연기한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내라고만 밝혔을 뿐 실무적 의견 수렴 뒤 결정하겠다고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김산 무안군수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중앙당의 상생발전TF를 통한 해법이 모색됐으나 역시 언제 속개될지 모른다. 2월 초 예정이던 국방부 주관 관계기관 협의회도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로 미뤄졌다. 광주시는 언급하기조차 조심스럽다. 최대 난제인 군공항 이전이 안갯속이다. 당초 정부의 주선에도 무안군의 참여가 불투명했다. 앞서 광주

시는 군민과의 소통·홍보 창구였던 열린대화방 운영을 중단했고 공항도시 미래비전 토론회와 여론조사도 중지한 바 있다.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작년 12월 데드라인도 철회했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맞물려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을 추진한 전남도는 6월까지로 제시했지만 뜻밖의 변수들에 맞닥뜨렸다. 2025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대화를 재개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만만찮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조기대선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 군공항과 대구 신공항은 쌍둥이 특별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진행돼왔다. 대구시는 이주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무안국제공항 정상화, 안전성 확보 등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당분간 군공항 이전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 지원을 이끌어낼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 광주시의 속은 더 타들어 가고 있다.

불황과 탄핵 여파에도 광주·전남 온도탑 뜨겁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온도탑은 뜨거웠다. 불법 계엄에 따른 혼란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겹쳤지만 온정의 손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광주 온도탑은 1086도를 기록했다. 개시 52일 만이자 종료 9일을 앞두고 55억6천282만원을 모금, 목표액(61억2천만원)을 조기에 채웠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7억원이 더 많았다. 전남은 134억6천만원으로, 1182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2주 전 목표(113억9천만원)를 넘어섰다. 온도탑은 1% 달성 때마다 1도씩 오른다. 애초에 연말연시 나눔 문화의 상징인 온도탑이 좀처럼 끊어오르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기우에 그쳤다. 시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대한 저력을 보여줬다. 자신도 딱한 형편에 놓였으나 더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저 없이 손을 내밀었다. 여러가지 일이 중첩돼 민생경제가 악화됐는데도 법인은 물론 개인의 참여

역시 전체 액수의 절반에 가까웠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캠페인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작돼 설 명절 연휴가 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제주항공 유족을 위한 특별 기부도 계속된다. 작은 정성이 모이고 있다.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성금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과 단체의 기초생계, 교육·자립,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 심리·정서, 돌봄 강화, 소통·참여, 문화격차 지원 등 8개 분야 사업비로 쓰인다. 침체된 경제 여건이 언제 회복될지 불확실하다. 모두 힘들어 한다. 혹한의 날씨보다 공공 얼어붙었다. 취약계층에게는 가혹한 겨울이다.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웃을 돕는 일에 너도나도 적극적이다. 자기몫이 불편하고 생계 걱정을 해야 할 때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쑥 오른다. 치솟고 있다. 더불어 사는 행복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문화난장



김 중 분 前 전남도여성가족정책관

최근 출생아 수가 다소 증가했다. 지난 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출생아는 24만2천334명으로 2023년 출생아 23만28명(합계 출산율 0.72명)보다 증가했다. 감소추세를 보이던 출산율이 8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ECD 평균 1.51명의 절반 수준이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도 출산을 꺼리고 늦추는 경향 때문이다. 2023년 8월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결혼 후 출산 의사가 없다고 한 청년이 2018년 46.4%에서 2022년 53.5%로 7.1%p 증가했다. 심각한 저출생 절벽시대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정부가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하고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기를 확대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형태의 지원금이다.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

육아휴직제도 실효성을 더 높이려면

0%를 지원하는데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350만원 급여를 받는 사람이 1년 육아휴직을 한다면 3개월 동안은 상한액인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200만원, 7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하한액인 160만원을 받는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모가 6개월을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3개월씩 번갈아 사용해도 된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주 15~35 시간 근무를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이전에는 8세(초2) 이하 자녀를 둔 부모만 가능했지만 12세(초6) 이하 자녀의 부모까지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분할사용도 가능해져 4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월급이 아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국민연금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대신에 그만큼 연금수급액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역시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단, 휴직이 끝난 뒤 납부유예된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육아휴직 중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서비스 받을 때이다.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 육아휴직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남성 육아휴직제도'나 '복귀 온보딩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고, 대체연력 지원금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발표된 한반도미래연구원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노동자들이 동료들에게

논치가 보이고, 승진 시 감점을 받을까봐 육아휴직을 못한다고 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위반사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6.8%에 그쳤다. 위반해도 처벌이 약하기가 사업주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지키지 않는다. 육아휴직제도가 개선됐다. 이제 문제는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하는 점이다. 육아기 임직원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모든 사업주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의무화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12세 미만 자녀의 일상생활돌봄(식사준비, 외출준비, 준비물 챙겨주기 등) 조사를 보면 아내가 77.3%를 돌보고 있고 남편은 1.7%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육아기 아빠의 역할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향후 개선돼야 할 점이 더 있다. 시차출근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근로시간과 근로공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기업에 도입해야 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에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빠져있다는 점도 문제다.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우리 나라에서 자영업자에게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사례 중 하나다. 육아기간 동안 모든 육아기 보호자에게 육아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완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육아휴직제도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

현장칼럼



정 용 인 강진소방서장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에서 연평균(2014~2023년) 주택화재 발생률 약 18%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6%가

주택용 소방시설 중요성 간과해선 안돼

주택에서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상당수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찍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 설치를 분석을 통한 사책 추진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 되는 의무화가 시행됐고, 소방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화재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캠페인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위한 각종 관련 사책을 시행하고 있다.

화재 초기 단계에서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른 소방시설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 명절을 맞아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단순한 물질적인 선물이 아닌, 안전과 행복을 더해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 이번 설날만큼은 가족과 친지에게 다른 선물보다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카시 광장

내동맹이친 양심

신옥비

너도 한 번쯤 진흙탕에 처박혀볼래 \*시작노트 즐겁게 떠난 문학기행. 진흙탕에 던져진 우산이 억울한 듯 눈살을 찌푸리며 항의합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이제 필요없다고 해서 던져버리나너희도 한번 처박혀볼테냐' 우산은 분명 우리에게 비를 피할 수 있게 자기 할 일을 했을 겁니다 하찮은 물건일지라도 소중히 여겼으면 합니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천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인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FAX 편집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1)·규토록월 15,000원 1부 800원